

SK가스, LPG 공급가격 동결

10월 인상요인 불구 물가안정 고려 ... E1은 월말 결정할 듯

SK가스는 LPG(액화석유가스)의 10월 충전소 공급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.

이에 따라 SK가스는 10월 가정용 프로판 가격은 kg당 832원, 차량용 부탄은 kg당 1226원에 공급하게 된다.

SK가스 관계자는 “LPG 수입가격이 톤당 75달러 상승하는 등 원가상승 요인이 kg당 약 170원 이상에 달할 것”이라며 “하지만 LPG가 택시 등 서민들의 자동차 및 취사·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연료인 만큼 물가안정 차원에서 공급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”고 밝혔다.

SK가스가 10월 공급가격 동결을 미리 결정한 것은 추석연휴 등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.

또 다른 LPG 공급기업 E1은 “가격산정 요소들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0월 공급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”며 “월말에 결정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LPG 수입기업들은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Saudi Aramco가 국제가격을 통보하면 월말에 수입가격과 환율, 각종 세금, 유통비용 등을 반영해 다음 달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9/23>